

교육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



도쿄대학 고마바캠퍼스

일본의 교육제도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서양의 사상, 과학, 및 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이면서 당면하게 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십 년 만에 일본이 다시 회복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에 일본 사회는 문화적 규범의 변화, 과학과 기술의 진보,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어려운 사업 환경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것은 일본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방향은 정부, 교육계,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역사

읽기, 쓰기 교육은 6세기에 한자와 불교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701년 수도와 지방에서는 귀족 자녀를 위해 다이호 규범이 확립되었다. 가마쿠라 시대(1185년경-1333)를 시작으로, 더 많은 무사계급의 자녀가 정식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265년간 지속된 평화로운 에도 시대(1603-1867)에 이르러서야 점진적으로 상류층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에도 시대의 교육은 주로 틀에 박힌 방법에 의한 학습과 중국 고전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학교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첫번째는 에도 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약 270개 교에 달한 학교(‘한코’)인데, 주로 무사 계급의 자녀가 이 학교에서 교육 받았다. 다른 하나는 평민과 무사계급 자녀가 입학했던 ‘데라코야’ 학교로, 도덕 수련 및 읽기, 쓰기,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주로 독신 선생님 또는 결혼한 부부가 ‘데라코야’를 운영하였고, 에도 시대 말기에는 이와 같은 학교가 수천 개나 존재하였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인 1867년 경 일본의 식자율(識者率)은 당시 서구의 여러 나라보다 높았다. 이러한 교육 토대가 없었다면, 이어지는 시대에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은 서양과 같은 근대화 와 국가 단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3가지 초등, 중등, 대학 학제가 확립되었고, 초등교육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1947년에 점령군의 지시 아래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학교교육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2년 또는 4년제 대학 과정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또한 유치원(3세 이상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니는),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5년 과정 기술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특별 훈련학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다. 대학에는 4년제, 2년제, 대학원이 포함된다.

학교와 학과 과정

학사 일정: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기는 4월 1일에 시작되며, 3학기로 나누어져 있다. 주 6일이던 학교 수업은 점차 주 5일로 바뀌어 2002년에 주5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을 학습할 시간을 갖기 위해 토요일 수업 재도입을 위한 특별허가를 받기도 했다.

학사 과정 안내: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각 과목과 각 학년의 목표 및 수업내용의 기본틀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준비하였다. 일본 전역의 학교는 약 10년마다개정된 이 안내서를 따른다.

학교 교과서: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문부과학성의 검정과 승인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1886년 이래 시행되어 온 공식적인 허가 제도의 목적은 교육을 표준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치와 종교 문제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1963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배급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각 공립학교 지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현 교육위원회가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위원회에 의해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 후보들 중에 채택한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선택권한을 갖는다.

취학 전 교육: 초등학교 전의 교육은 유치원(‘요치엔’)과 보육원(‘호이쿠엔’)에서 담당한다. 공립과 사립 보육원에는 만 1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다닌다.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비슷하다. 전체 유치원의 약 60%는 사립이다. 유치원과 보육원을 겸해 다니는 5세 아동은 95%를 넘는다.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은 놀이를 우선시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부터 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아주 체계적인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초등학교: 만 6세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다. 초등학교의 99%는 공립 남녀 공학이다. 교사 한 명이 한 학급을 맡고 있고, 음악과 미술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친다. 2011년 현재, 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의 최대 정원은 35명이며, 그 외의 학년은 40명이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학급을 나누지는 않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 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그룹을 나누기도 한다. 교과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다. 일본어, 사회, 수학, 과학, 생물 환경, 음악, 미술, 공예, 체육, 그리고 가정이다. 특별 활동, 도덕 교육 과정, 광범위한 주제(국제 사회의 이해, 환경, 자원봉사 활동 등)를 다루는 통합 교과도 포함된다. 읽기와

쓰기는 초등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두 가지의 일본어 문자 학습에 더하여, 6학년까지 적어도 1,026개의 한자를 배운다. 학교공부 외에 초등학생은 매년 운동회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가는 사회 견학에 참가한다.



운동회에서의 달리기
재학중에 매년 운동회에 참가한다.

2020년 시점에서는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또한 2020년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도 필수화된다.

중학교: 3년 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다. 90%가 넘는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다. 한 학급에는 최대 40명의 학생이 배정된다. (2016년 평균은 28.0명이었다). 대부분은 학생들의 실력으로 반을 배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들은 수학과 영어 과목을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기도 한다. 기본 교육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다. 일본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외국어(대부분 영어), 음악, 순수 미술, 보건과 체육, 산업 미술과 가정이다. 특별 활동, 도덕 교육 과정, 통합 과목도 포함된다.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간다. 학업의 일환으로 여행지의 문화를 배우고 그 외 활동에 참가한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은 아니다. 2010년, 중학교 졸업생의 98%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전체 고등학교의 약 74%는 공립이다. 고등학교 입학은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한다. 경쟁이 치열한 학교도 있다. 중, 고등학교가 통합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공립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고등학교의 핵심 교과 과정에는 일본어, 지리, 역사, 국민 윤리, 수학, 과학,

보건과 체육, 미술, 외국어, 가정 경제학, 정보가 있다. 특별 활동 및 통합 교과도 교과 과정에 포함된다. 특별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주요 과목의 학습 시간을 줄이고, 관련 분야의 과목(비즈니스, 산업 미술, 농업, 등)들을 많이 학습한다.

거의 대부분의 중학생이 그들의 희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가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냉담을 없애고 낙오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부응하는 새롭고 다채로운 고등학교 교육이 선을 보였다. 그러한 새로운 모델의 예로, 전 학년 성적보다는 학생들이 쌓은 실적을 기준으로 졸업시키는 학점제 고등학교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학과목을 선택하는 통합 교과학교가 있다.



여고생들의 모습
(사진제공 : Getty Images)

대학교: 일본의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 진학률은 1993년 41%에서 2018년에는 57.9 %로 증가하였다. 2018년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3.3 %이고. 전문 대학생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전체 대학의 85.7%와 전문 대학의 95%가 사립 대학이다. 2016 회계연도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생의 10.9%가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최근 국립 대학의 획기적인 제도 변화와 더불어, 일본의 대학 제도에 광범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2004년에는 99개의 국립 대학이 89개의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덧붙여서, 국립 대학(문부과학성의 내부 기관인)들이 민간 부문의 경영 기술을 도입하였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존경받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전시켜 보다 경쟁력 있고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화하였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은 비즈니스와 법 분야에 특별 석사 과정을 도입하였다.

일본 대학에는 외국인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취학전 학교, 기술 대학/전문 훈련 대학,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수는 29만 8980명에 달한다. 그 중 약 93%가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다.



검도를 배우는 유학생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보습학원과 입시준비학원: 교육 제도에서 핵심은 아니지만, 보습학원('가쿠슈즈쿠')과 입시준비학원('요비코') 또한 일본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시준비학원은 대학입학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보습학원은 주로 학교 시험을 대비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교과목을 보충하고 정규 과목 외의 과목들을 가르친다.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한 2008년 회계연도 추산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학생의 25.9%, 공립중학교 학생의 53.5%가 보습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개혁과 도전

개혁: 일본의 교육 제도는 협조적인 자세, 조직의 규율, 기준과의 일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은 숙련된 산업노동력을 생산하여 일본이 20세기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더 나아가 대부분의 일본인이 그들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교육이 자녀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길로 여기게 하였다.

2006년에 정부는 처음으로 1947년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교육 활성화, 전통과 문화의 존중,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교육 방안을 포함한다. 2008년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시간도 늘리게 되었다.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는 2011년도부터, 중학교는 2012년도부터 도입되었다. 다음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과학: 일본의 학교 시스템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예를 들어, 1949년 유카와 히데키는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다. 중간자의 존재를 예측해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1973년의 에사키 레오나(물리학상), 1987년의 도네가와 스스무(생리의학상), 1994년의 오에게자부로(문학상)로 이어져 최근에는 자연과학계의 노벨상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2002년에는 도쿄대학의 고시바 마사토시가 물리학상을, 2008년에는 홋카이도대학의 스즈키 아키라, 도쿄대학의 네기시 에이치가 화학상을, 그리고 2012년에는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가 iPS세포 개발로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과 2010년에만 총 6명이 과학분야 최대의 영예로 일컬어지는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 과학기술 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모습을 알렸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2010년대에 노벨상을 계속 수상해 왔다. 나고야대학교의 아카사키 이사무와 아마노 히로시가 2014년에 물리학상을 수상한 후, 도쿄대학교의 카지타 타카아키가 2015년에 같은 상을 수상했다. 도쿄과학대학교의 오무라 사토시는 2015년에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도쿄기술대학교의 오스미 요시노리가 2016년에 같은 상을 수상했다.